조계종 임시 종회, 6월 23일로 잠정 합의

6월 2일 간담회서 결정
불교광장 소속 스님 불참
보인 스님 "책무 다해야"
실제 개원 여부는 불투명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중앙종회는 6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38회 중앙종회 임시회 개원 일정을 논의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6월 23일 열릴 전망이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는 6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38회 중앙종회 임시회 개원 일정을 논의했다. 당초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종책모임 회장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로 예정됐지만, 최대 종책모임인 불교광장 소속 의원들의 불참으로 성원이 미달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비롯해 교육분과위원장 도성 스님, 선우회장 보인 스님, 정법회장 탄원 스님, 중앙종회 사무처장 재안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성웅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임시회는 선우회와 정법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소집 요구가 발의되면서 추진됐다. 선우회장 보인 스님 등 종회의원 27명은 5월 29일 종회 사무처에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의원 스님들은 "오는 9월 총무원장 선거와 10월 중앙종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과 종도 화합을 위한 중앙종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소집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종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15일 이내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회 7일 전 공고 절차도 거쳐야 한다.

주경 스님은 이날 임시회 소집 절차와 관련해 "중앙종회법상 15일 이내 소집 규정도 중요하지만, 개회 7일 전 공고 규정은 회의 효력과 직결되는 강행규정"이라며 "종헌종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 임시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괜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임시회 일정을 정하고자 한다"며 "현재 결제에 들어간 스님들이 많아 수행 풍토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종회 대중의 공감을 얻는다면 성원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종회사무처는 공고 규정을 적용하면 가장 빠른 개회일은 6월 16일이지만, 전날인 15일이 음력 초하루인데다 총무원 주요 일정도 예정돼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6월 23일 개원을 제안했고, 참석자들이 동의하면서 임시회는 6월 23일 개원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보인 스님 등은 은해사 산중총회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 간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종법 개정과 직영사찰법 개정 등을 위해 임시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인 스님은 "종단의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선거의 공정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대중들의 요구가 많았다"며 "은해사 선거 과정에서의 문제나 직선직 선출을 앞둔 상황인 만큼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집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에도 연석회의가 성원조차 되지 않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중앙종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성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보인 스님은 "종회의원들이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37대 집행부를 점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란다"며 "의장 스님이 중심을 잡아 임시회가 여법하게 열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탄원 스님은 "처리해야 할 선거법 개정안 등이 있기에 종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임시회가 열려 소통과 논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성 스님도 "3월 종회 당시에는 종회를 열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후 종단 안팎에서 우려스러운 일들이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며 "총무원 행정과 종단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앙종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교광장 내부에서는 임시회 개최에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실제 개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중앙종회 개원 정족수는 재적의원 81명의 과반인 41명이다.

조계종, 마하사 수용재결 취소 판결 '환영'

5월 27일 대변인 묘장 스님 논평
"사찰 역사 · 문화 가치 인정 받아"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대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의 부산 황령산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재결 취소 판결에 공식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5월 27일 대변인 묘장 스님 명의의 논평을 내고 "지난 2월 12일 대법원과 5월 14일 부산지방법원의 마하사 전통사찰보존지 수용재결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며 "해당 판결은 전통사찰이 보유한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통사찰의 부동산을 공공목적으로 강제 수용하는 경우, 전통사찰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양도허가 절차와 종단 대표자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짚으며 "마하사 토지 강제수용 건은 종단 대표자인 총무원장의 승인이 없었던 만큼 강제수용이 무효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조계종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전통사찰보존지 강제수용이 수행·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가 보장됐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개발과 전통문화 전승이라는 두 과제가 상호 보완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월 12일 마하사 사찰림 5개 토지 4900㎡에 대한 수용재결 취소를 최종 판결한 바 있다. 이어 부산지방법원은 5월 14일 마하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수용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 대상 토지는 또 다른 사찰림 2개 토지로 3만 4637㎡ 규모다. 김내영 기자

중국서 첫 개최된 UN베삭데이 성료

5월 26~27일, 장쑤성 영산범궁서
'불교 지혜로 인류 미래 구축' 주제
월도 · 정범 스님, 주제 발표 나서



불기 2570(2026)년 제21차 UN베삭데이(United Nations Day of Vesak) 행사가 5월 26~27일 중국 장쑤성 우시 영산범궁 일원에서 '불교의 지혜를 통한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촉진과 인류 공동미래 구축'을 주제로 진행됐다. 중국에서 UN베삭데이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76개국에서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한국 측 대표단에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인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부장 진성 스님,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 진각종 총무부장 원상 정사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총장 진호 스님이 참석했다.

5월 26일 봉행된 세계평화기원법회는 세계 각국 불교지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평화와 인류 화합, 지속가능한 미래를 발원했다.

한국 측 대표로 기조발언에 나선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라는 상호연결의 세계관은 현대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는 중요한 통찰이 될 수 있다"면서 "중도의 실천은 극단과 대립을 넘어 조화와 균형, 공존과 포용의 세상을 이루는 반야의 실천행"이라고 강조했다.

5월 27일에는 한국 측 대표로 종단협 부회장 대리인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이 '녹색 생태 및 지구 보호를 위한 불교의 실천'을 주제로, 조계종 해외특별교구장 직무대행 정범 스님은 '불교가 공동 번영에 기여한 바'를 주제로 발표했다.

영산범궁 묘음홀에서 진행된 폐막식에서는 ICDV 부회장 담마라타나 스님이 제21차 UN베삭데이 주요 논의 성과를 발표했으며, 이어 중국불교협회 부회장이자 상해시불교협회 회장인 조성 스님이 '제21차 UN 베삭데이 우시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불교의 자비와 중도, 화합과 평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신중일 · 임은호 기자

안전 참사에 태고종 애도…불교 유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고에
6월 1일 대변인 애도문 발표
서소문 사고에도 위로 전해

최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 참사에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애도를 표했다. 잇단 안전 참사에 애도 메시지를 발표한 불교 종단은 태고종이 유일하다.

태고종은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 발생한 폭발사고 직후 발표한 대변인 구암 스님 명의의 애도문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다섯 분의 희생자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극락왕생을 발원한다"면서 "갑작스러운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위로했다.

이어 "최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사고에 이어 또다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안전수칙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작업 현장에서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의식이 자리 잡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사고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은 더욱 크다"고 전했다.

이에 태고종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하며 "산업현장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태고종은 5월 26일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 다음날인 27일에도 대변인 구암 스님 명의로 애도문을 발표했다. 태고종은 "금번 서소문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두 손 모아 발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이어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될 수 있는 가치는 없으며,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가 안전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해야 할 엄중한 경고"라고 지적하며 "관계당국은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며, 희생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신중일 기자

